성장과 분배, 그리고 사회보장

이 정 우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 차별시정위원장

참여정부의 지난 2년을 되돌아 보면 정치적으로는 격동의 회오리였고, 경제적으로는 내수불황과 양극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고통이 컸던 대신 그 성과도 커서 불과 2년 만에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깨끗한 선거가 자리잡는 등 상전벽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대 · 중소기업, IT · 비IT산업, 수출 · 내수산업 등 각종 산업부문간의 양극화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산양극화, 그리고 비정규직 확산 등에 따른 소득양극화의 골이 깊이 패여 있다. 게다가 심각한 내수 불황이 2년 넘게 지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서민층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핍박하다.

이 모든 현상은 시장경제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경기순환이라는 시장실패임과 동시에 시장경쟁에 적응하지 못한 패배자의 출현이라는 시장실패이자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정부의 실패이기도 하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작동되기 위한 인프라가 미비하고, 기부문화 등과 같이 시장실패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기능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시장실패는 훨씬 많은 사회적 약자를 만들어 내고, 양극화의 골도 더욱 깊어진다. 또한 최근에 급속히 진행중인 고령화와 공동체의 붕괴는 기존의 안전망 구실을 하던 가족단위의 상호부조 기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살필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가의 몫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되는데, 특히 형평과세를 위한 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을 가진 봉급생활자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불균형 성장전략, 성장일변도의 정책으로 인해 성인이 되기도 전에 일각에서는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매스가 필요한 곳에 보약처방을 하고, 보약이 필요한 곳은 반창고를 붙이는 방식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경제양극화 현상을 치유할 수 없다. 사회에서 배제되어 고통 받는 빈곤층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며, 한 다리만 건너면 나의 친척이고 가족이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나라경제를 튼튼하게 만들고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자명하며, 최근 외국 경제학자들의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 국민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은
> 국가의 기본역할인 동시에
> 창의적인 생산활동을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전제조건이
>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단절과 배제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단절과 배제의 문화는 공동체의 붕괴와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 참여 ’라는 철학을 통해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참여정부는 그런 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에 대한 기본생활보장은 국가의 기본역할인 동시에 창의적인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자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개인에게는 생활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적으로는 잠재성장력을 발굴, 확대하는 효과를 갖는다.

최근 경기침체, 경제양극화, 고령화 및 가족해체 등에 의한 빈곤의 심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내수 불황이 오래 가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되,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경기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장기적으로 성장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사회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국제적으로 결코 과다하지 않다.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지금까지 미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강화하는 한편,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아 보육에서부터 학교교육, 직업재교육, 그리고 고령화사회 도래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동반성장으로 가는 주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포럼』은 사회보장, 보건 분야에서 시의적절한 주제의 시론을 우리 사회에 전파하는 중요한 일을 해왔다. 특히, 이번 호에서는 성장과 분배의 관계를 주제로 주옥같은 글들이 실려 있다. 정책 담당자들이나, 학계, 나아가서는 교양 있는 시민들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훌륭한 글들이다.

40년간의 성장의 시대를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성장일변도의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지만 우리도 이제는 좀 균형 잡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분배도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고, 또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갈 때 수레가 더 잘 달린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마침 이번 특집이 이 문제를 주제로 한 좋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담론 형성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며 많은 사람들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성장이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없지만,
분배도성장못지않게중요하고,
또 성장과 분배는 수레의 두바퀴처럼같이 갈 때
수레가 더 잘달린다.